

맥주 찌꺼기를 재이용한 에코염색

업무가 끝난 후에 마시는 맥주는 참을 수 없이 즐겁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만드는 쪽인 맥주회사에서는 지금 그 제조공정에서 생기는 폐수라든가 용기 등의 리사이클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있다. 폐기물의 98%까지를 리사이클하고 있는 일본의 기린맥주에서는 새롭게 맥주 찌꺼기로 염색한 T셔츠를 고안하였다. 에코 T셔츠라고 이름 붙여져 공장에 개설된 비어홀 (beer Hall)에서 판매하고 있다. 에코라 함은 에콜로지의 약어으로써 환경보호라고 하는 의미이다. 이러한 T셔츠는 맥주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대맥이라든가 호프 등의 찌꺼기로부터 황금색의 염료를 추출하여 프린트한 것이다. 손수건 등을 홍차로 염색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듯이 맥주의 찌꺼기로써 T셔츠를 염색하는 것이다. 만들어진 T셔츠가 무엇인가 특별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도 아니고 피부 촉감도 일반 제품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고 하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맥주는 인류의 조상이 유목생활에서 정착하여 곡류를 재배하면서부터 곡류의 가공으로 빵과 함께 생겨난 것으로 본다. 역사적으로는 BC 42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여섯줄 보리인 육조대맥(六條大麥)이 재배되면서 시작되었다고 추측되며, 함무라비 왕조의 유적에 기록이 남아 있다.

그 후 보리의 재배가 이집트로 전해져 이집트 제 4왕조 때부터 제조되었다고 하며, 그 방법은 그리스·로마를 거쳐 유럽으로 전해져 두줄 보리인 이조대맥(二條大麥) 산지인 독일 및 영국에서 발전·성행되었다. 현재 쓰고 있는 맥주효모균의 학명은 로마시대에 맥주를 세레비시아(cerevisia)라 부른 데서 유래한다.

유럽에서는 초기에 가내공업으로 수도원에서 양조하였으나 소비층의 확산, 기계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대규모 맥주공장이 생겨났다. 호프(hof)를 첨가한 것은 10세기경부터이며, 독일의 바이스비어(WeiBbier)는 1541년 뉘른베르크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영국의 에일(ale)과 포터(porter)는 8세기경부터 만들어졌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1930년대에 소화기린맥주와 대일본맥주식회사가 들어와 각각 동양맥주와 조선맥주가 되었고, 지금은 오비맥주(주)와 하이트맥주(주)가 되었다. 8·15광복 후 품질향상으로 외국제 맥주를 추방하고 원료의 자급화에 힘써 한때 맥주용 보리와 호프를 자급하였으나, 맥주소비의 급증으로 수입량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